

# 안티푸라민부터 렉라자까지... 100년 여정 딛고 혁신 창출

## Q 르포

### 유한양행 '윌로우 하우스'

옛 사옥,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선물 유래 압도적인 푸른 빛 '버드나무' 로고 소유·경영 분리... 선진 지배구조 유일한 박사 '사회 환원' 대의 박제 우수한 생산 기반 글로벌 영토 확장

유한양행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창업주 유일한 박사가 왜 존경받는지 그리고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현장에 남아있다. 유한양행은 100년은 뿌리 위에서 꽃을 피운 '청년 기업'이다.

지난 24일 방문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윌로우 하우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유한양행을 상징하는 거대한 푸른 빛의 버드나무 로고가 관람객을 압도한다.

버드나무는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에게 '나라와 민족의 유용한 재목이 되라'며 선물한 목각판에서 유래했다. 기업명 자체도 서사가 깊다. 멀리 타국에서도 한국인임을 잊



윌로우 하우스 1층 전경.

지 않기 위해 유일한 박사의 성 버들 유(柳)에 한국 한(韓)을 합치고, 특정 업종에 머무르지 않고 널리 사업을 펼치겠다는 뜻의 양행(洋行)을 붙였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시작한 100년의 여정은 한국 제약 산업이 걸어온 거목의 길이기도 하다.

전시관 중심 벽면을 가득 채운 황금빛 글귀들은 자본주의 정글 속에서 유한양행이 지킨 정체성을 전달한다. '기업의 제1 목표는 이윤의 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기업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윌로우 하우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각종 유한양행 개발 의약품이 전시되어 있다. /유한양행

것이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등 유일한 박사가 남긴 명언들은 오늘날 유한양행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영감본이다.

이 기업이 정신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선진 지배구조로 실현됐다. 유한양행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갖췄다. 창업주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이 대주주이며 평의원 출신의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된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주주 배당을 통해 다시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으로 환원되어 교육 등 사회 부문에서 쓰인다.

창업주 일가의 세습이나 경영권 분쟁 없이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은 유일한 박사의 유언이기도 하다. 친필 유언장

은 빛바랜 종이로 보관됐고 '소유 주식을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교육 및 사회공헌에 써달라'는 대의는 박제됐다.

특히 창업주가 목숨과도 같았던 자산을 전량 투입해 일궈낸 것은 국산 의약품이다.

그 첫 걸음에는 국민 상비약 '안티푸라민'이 있다. 1933년 출시한 유한양행 최초의 자체 의약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초록색 캔에는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겠다'는 신념이 담겼다.

과거 안티푸라민이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현재는 폐암 신약 '렉라자'가 세계를 이끈다. 렉라지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제31호 국산 신약이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 도약하는 치료제다.

또 렉라지를 비롯해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글로벌 오

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는 물론, 인벤티지랩 등 유수의 국내 바이오벤처들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지도 위에 치밀한 글로벌 4대 전략을 선명하게 그려놓았다. 미국·유럽·일본을 혁신신약 수출과 글로벌 상업화의 거점으로 정조준한다.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에는 해외 공동연구 기지를 세웠고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등에서는 원료의약품 사업을 활발히 한다.

이 웅대한 발걸음을 뛰게 하는 든든한 심장은 오창 공장과 오송 공장이다. 글로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충족하는 생산 시설과 역량이 뒷받침된다.

이날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혁신하여 더 좋은 약을 만들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바른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윌로우 하우스는 1962년 준공 후 60년 동안 유한양행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공간이다. 1996년까지 35년간 본사였고 1997년에는 신사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올해부터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지아이이노베이션, 'BIO USA' 기업발표

GI-101A, GI-102 임상개발 성과 PAH 치료제 후보물질 GI-214 공개 글로벌 협력 위한 사업개발 미팅도

(췌지아이이노베이션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BIO USA)의 공식 프로그램인 '기업 발표' 세션에 선정돼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MSD,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등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 협력을 진행 중인 GI-101A와 GI-102의 임상개발 성과 소개 및 차세대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후보물질 GI-214를 중점적으로 공개했다.

GI-214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이 면역항암 분야를 넘어 심혈관·희귀질환 영역으



(췌지아이이노베이션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BIO USA)의 공식 프로그램인 '기업 발표' 세션에 선정돼 발표를 진행했다.

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폐동맥고혈압은 폐혈관이 비정상적으

로 좁아져 폐동맥 압력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분야다. 현재 글로벌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약 8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3년에는 130억 달러(약 18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이번 BIO USA에서 공식 '기업 발표'와 더불어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1A, GI-102, GI-108 및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GI-214를 중심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사업개발(BD)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전임상 파이프라인인 GI-214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신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애경산업 '케라시스', 신형 뷰티시장 공략

우즈벡·카자흐스탄 등서 K팝 행사 독립국가연합 지역서 브랜드 확산

애경산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신형 뷰티 시장에서 K뷰티 대표 '헤어 브랜드' 입지 선전에 나섰다.

애경산업의 고급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는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K뷰티에 K팝을 더한 행사를 선보이는 등 브랜드 확산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케라시스는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매직 시티에서 '케라시스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챌린지'를 열었다. K팝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는 대회로 약 1000명의 K컬처 팬들이 모여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케라시스는 앞서 이달 6~7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메가 알마 아타에서 개

최된 'K팝 스타 카자흐스탄'을 공식 협찬했다. 해당 축제에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약 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11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케라시스는 이처럼 현지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브랜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케라시스는 지난 2020~2025년 CIS 지역에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 18.4%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매출 성장률은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7% 수준이다.

애경산업 데일리케어사업부 안정태 상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케라시스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팜젠사이언스, 차세대 MRI 조영제 개발 박차

K-MEDI hub 전임상센터와 '맞손'

팜젠사이언스가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임상 진입 및 사업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

팜젠사이언스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전임상센터와 '전임상 연구 및 신약개발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신약개발 역량과 전임상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연구개발(R&D)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 의약품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

동 연구 및 기술 협력 체계 구축, 전문 연구인력 간 교류, 첨단 연구시설 및 연구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K-MEDI hub 전임상센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전임상 연구 전문 기관이다.

특히 팜젠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MRI 조영제의 비임상 평가와 관련해 K-MEDI hub 전임상센터의 전문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유효성 및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당사가 추진 중인 차세대 MRI 조영제 개



팜젠사이언스가 K-MEDI hub와 차세대 MRI 조영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의 비임상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MEDI hub 전임상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HLB생명과학, 'MDSAP' 인증 획득

주요 주사기 제품군 대상

HLB생명과학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HLB생명과학은 국제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SAP'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MDSAP은 제조시설의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검증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 등 5개 국가 규제 당국이 공동으로 인정한다.

이번 심사는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주사침, 멤브레인 필터 주사기, 세척용 주사기 등 주요 주사기 제품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제품의 설계·개발, 제조, 판

매 전 과정이 인증 범위에 포함됐다.

인증 획득에 따라 HLB생명과학은 그간 국가별로 진행하던 중복 심사 부담이 줄어들어 해외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어 및 해외 파트너사와 신규 계약 과정에서 품질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 협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백운기 HLB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MDSAP 인증은 회사의 주사기 품질경영체계가 글로벌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